

2023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위원정수	11인	재적위원수	11인
------	-----	-------	-----

1. 일 시 : 2024.01.26.(금) 10시 30분
2. 장 소 : 대구예술대학교 제1예술관 2층 회의실
3. 위원 출석현황

구분	참석	불참석	참석의원	불참의원
위원	9명	2명	이근배, 백진우, 이상직, 김성기, 김성원, 김종문, 정영주, 박종수, 김성준	한지수, 이혁화

4. 안건

- 제1호의 안 : 대학평의원회 의장단 구성
- 제2호의 안 :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자문
- 제3호의 안 :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원칙 자문
- 제4호의 안 : 2023, 2024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안) 자문
- 제5호의 안 : 2024학년도 수업료 책정(안) 자문
- 제6호의 안 :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본 예산(안) 자문

5. 회의내용

가. 개회

- ‘간사’가 재적위원 11명 중 9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됨을 보고하고, 평의원회 의원들의 임기만료로 의원들이 새로이 구성되었기에 의장단 구성을 위해 임시의장을 호선해 주길 요청하다.
- ‘김종문’의원이 이근배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추천하자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근배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호선하다.

나. 안건 심의

- 제1호의 안 : 대학평의원회 의장단 구성에 관한 건
 - ‘임시의장’이 제1호의 안을 상정한다고 하고 의원들에게 의장 및 부의장을 추천해 달라고 하다.
 - ‘김성기’의원이 의장에 이근배 의원을 추천한다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부의장에 백진우 의원을 추천한다고 하다.
 - ‘임시의장’이 의장에는 이근배 의원을, 부의장에는 백진우 의원을 추천한다는 의견에, ‘김종문’의원의 동의와 ‘이상직’의원의 재청이 있어 임시의장이 참석의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제2호의 안 :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자문
 - 제안설명
 - ‘의장’이 제2호의 안을 상정하면서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가 이번 추경은 2023회계연도 최종 예산(안)이 될 것이라고 하며 예산총괄표를 기본으로 설명하다.

서명	이근배	김성기	백진우	김성준
----	-----	-----	-----	-----

교비회계 총 수입이 이월자금을 포함하여 9,710,145천원으로 1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87,19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등록금회계에서는 재학생 수가 예상보다 늘었고 비등록금회계에서는 교육외 수입이 증가했다고 하며, 총 지출은 수입예산에 맞추어 책정했다고 하다. 그리고,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의 2차 추가경정 예산 수입·지출에 대한 예산변동세부내역을 설명하면서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예산 중 등록금회계에서는 1차 추경 대비 재학생 수가 소폭 증가하였고 예금이자도 증가하였다고 하다. 비등록금회계에서는 예금이자도 증액된 것이 수입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하다. 지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등록금회계에서 희망퇴직금이 신설되었고 비등록금회계에서는 국제교육원 관련 예산의 변동이 많았고 적립금의 예금이자도 다시 적립하는 금액이 컸다고 하며 그외는 수입예산에 맞게 조정하였다고 하다. 그리고,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기타 예산세부내역에 대해 설명하다.

- 토론 및 토론 종결

- ‘의장’이 해당 안건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다루는 것으로 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묻다.
- ‘백진우’의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직적인 운영이 보인다. 학교가 발전을 할려면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예산(안)은 모두 감액만 있다. 학생복지라던지 보면 행사 자체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보면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대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함에도 축제, O.T, 체육대회 같은 행사가 아예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다.
- ‘김종문’의원이 행사가 개최되면 좋지만 본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학생구성 또는 학생회와 연계문제가 있어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학 본부에서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지는 못한다고 하다.
- ‘백진우’의원이 대학에서는 할려고 했으나 학생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하다. 졸업식을 안한지도 오래됐고 올해도 안하는 것으로 안다고 하다. 평의원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다.
- ‘김성기’의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만 나섰으면 한다고 하다.
- ‘김성준’의원이 전년도에 제가 총대의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학교측에서 행사를 하자고 했으나 학생들이 반대를 하면서 행사를 진행을 못했었고 이번에 총학생회가 구성이 안되서 총대의원회가 그걸 이어받았어야 하는데 구성이 안되어서 학교측에서 행사를 하자고 해도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하지 않으므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학생이 대표로서 다른 학생들을 이끌어 나갔어야 한다고 하다.
- ‘김성준’의원이 대표로서 진행해 볼려고 했으나 다른 대의원들이나 학생들이 반대나 참여를 하지않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비등록금 변경내역을 보면 대체로 국제교육원이 언급되는데 국제교육원이 없었을때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사에게 질문하다.
- ‘간사’가 비등록금계정에서 큰 부분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원, 교육관 운영에서 나오는 수입 및 지출, 기지국 등의 리스비용, 임대료 등이 있다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언급이 안된 사유가 있는지 간사에게 질문하다.
- ‘간사’가 앞서 설명한 비등록금회계 부분은 보통 2차 추경에서는 조정되는 항목이 적었지만 이번에는 국제교육원이 사실상 금년부터 제대로 된 운영을 하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했고 운영초기에는 생각지 못했던 지출항목들이 생기면서 이를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 이번 2차 추경에 국제교육원 관련 항목이 많아졌

서 명	이근백	김종문	백진우	김성준
--------	-----	-----	-----	-----

다고 하며 '24학년도가 되면 운영이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변동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다.

- '의장'이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자문 건을 원안대로 하는데 전체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 제3호의 안 :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원칙 자문

- '의장'이 제3호의 안을 상정하면서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가 잉여금의 개념 및 잉여금 활용을 중심으로 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해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다.
- 토론 및 토론 종결
- '이상직'의원이 잉여금 처리원칙에서 가항이 아닌 나항인 교비회계 건물 감가상각비 적립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지 질문하다.
- '간사'가 감가상각비내에서라면 가능한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예산이 부족하여 가항의 예산을 책정할 수 없어진다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지금까지 잉여금을 처리하는데 가항과 나항의 처리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다.
- '간사'가 몇 년간 가항에만 적용하고 있다고 하다.
- '김종문'의원이 참고적으로 수년전에 학생들이 많았을 때는 나항에 적립을 좀 했지만 현재는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가항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나항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질문하다.
- '간사'가 임의건축적립금이라고 해서 금학년도 이자까지 포함하여 약 49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다고 하다.
- '백진우'의원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니 용도변경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다.
- '간사'가 작년부터 관련하여 알아보았으나 사학진흥재단에서도 교육법에서 임의건축적립금은 용도 외 사용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기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안된다고 했다고 하다.
- '의장'이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원칙 자문 건을 원안대로 하는데 전체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 제4호의 안 : 2023, 2024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안) 자문

- 제안설명

- '의장'이 제4호의 안을 상정하면서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때 부담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며, 2023회계연도 사학연금 부담금에서 부담금 기준액은 141,000천원이고 이 중 법인부담이 30,000천원이며, 2024회계연도 사학연금 부담금에서 부담금 기준액은 148,000천원이고 이 중 법인부담은 30,000천원이라고 하며 그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부담한다고 하다. 다만, 하반기 법인부담금액이 변동될 때 대학부담금의 변동도 함께 발생한다고 설명하다. 참고로 2023회계연도 법인부담금은 교육부에서 3,000만원에 대한 승인공문이 접수된 상태라고 하다.

- 토론 및 토론 종결

- '백진우'의원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예전에는 법인부담금이 다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만 부담한다는 건지 질문하다.

서 명	이근배	김종문	백진우	김병준
--------	-----	-----	-----	-----

- ‘간사’가 법인부담금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여력이 안되는 상황이라 전체금액을 부담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여력이 되는만큼만 부담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하면 교육부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이를 허가하거나 추가 금액을 더 전입하라는 공문이 오게 된다고 하며 예전부터 법인은 전체 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본 안건을 평의원회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다.
- ‘김종문’의원이 원칙은 법정부담금은 법인이 전액을 내야하는 것이나 법인도 수익사업에서 이익이 안날 수도 있고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학연금쪽에 연체가 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에 교육부에서는 모자란 금액에 대해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와 평의원회를 거쳐 교비회계에서 부족금액을 대체하겠다고 한다면 승인해 주겠다는 의미라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지금까지 법인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나온 수익이 이거밖에 안되다면서 전액을 부담하지 못하고 부족분은 교비회계로 계속 대체하고 있는게 문제라고 하다.
- ‘김종문’의원이 대학도 형편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법인에서도 법정부담금 전액을 전입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에 힘써 달라는 의견으로 자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다.
- ‘이상직’의원이 교육관도 교비회계인지 질문하다.
- ‘간사’가 교비회계의 비등록금회계라고 답변하다.
- ‘의장’이 2023, 2024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안) 자문 건에 대해 ‘법인은 법정부담금 전액을 전입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을 해달라’는 자문을 하면서 원안대로 하는데 전체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 제5호의 안 : 2024학년도 수업료 책정(안) 자문

- 제안설명

- ‘의장’이 제5호의 안을 상정하면서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
- ‘간사’가 대학 당국에서는 2024학년도 수업료에 대해 동결하는 것으로 안을 내었고, 작년과 동일하게 입학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가 그대로 이어져 입학금 실비용을 등록금에 산입하여 등록금을 책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국가장학금II유형으로 지원하겠다는 안내가 있어 신·편입생이 있는 전공의 수업료 인상(안)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하다. 지원대상 학생은 2024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이며, 금액은 2017학년도 입학금의 20%인 130,000원이라고 하다. 즉, 신·편입생이 있는 전공은 해당 학년의 등록금에 130,000원을 추가하여 인상을 하는 것이나 기존 재학생들은 해당이 없고, 해당 금액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II유형으로 신청하면 지원이 되기에 학생들의 실납부금액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하다. 다만, 선감면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학생들에게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다.

- 토론 및 토론 종결

- ‘백진우’의원이 국가장학금II유형을 못받는 학생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다.
- ‘간사’가 이 사항에 대한 국가장학금II유형은 신청한 학생은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다.
- ‘의장’이 2024학년도 수업료 책정(안) 자문 건을 원안대로 하는데 전체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 제6호의 안 : 2024회계연도 본 예산(안) 자문

- 제안설명

- ‘의장’이 제6호의 안을 상정하면서 간사에게 부연 설명을 요청하다.

서 명	이근애	김종문	백진우	김성준
--------	-----	-----	-----	-----

- ‘간사’가 2024회계연도 본 예산(안)의 수입이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등록금수입만으로는 지출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보수 등 일부 지출예산을 삭감하였고 이 중 교직원 보수는 비등록금회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책정했다고 하며 부족한 예산은 4월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할 때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다. 2024회계연도 수입총계가 3,557,538천원이고 이중에서 등록금회계가 1,862,216천원, 비등록금회계가 3,557,538천원이라고 하며, 지출은 감소한 수입에 맞추어 예산을 책정하였다고 하면서 항목별 예산내역에 대해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다. 참고로 금학년도 예산은 4월에 추경을 하면 정확한 예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그때 예산부족 여부를 보고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하다.

- 토론 및 토론 종결

- ‘백진우’의원이 대학재정이 정말 심각한거 같다고 하다.
- ‘의장’이 2024회계연도 본 예산(안) 자문 건을 원안대로 하는데 전체위원들에게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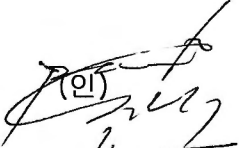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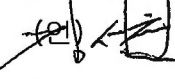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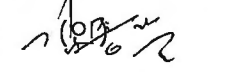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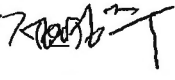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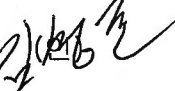
- 제1호의 안 : 대학평의원회 의장단은 의장에 이근배, 부의장에 백진우 의원으로 하기로 하다.
- 제2호의 안 :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다.
- 제3호의 안 :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원칙은 원안대로 의결하다.
- 제4호의 안 : 2023, 2024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안)은 ‘법인은 법정부담금 전액을 전입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을 해달라’는 자문을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다.
- 제5호의 안 : 2024학년도 수업료 책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다.
- 제6호의 안 : 2024회계연도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다.

7. 폐회선언

상기 회무를 마치고 위원들의 폐회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어 위원장이 가부를 물어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2023학년도 제3차 대학평의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본 회의록의 의사진행사항 및 그 의사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날인하다.]

2024. 01. 26

참석인원	의장	이 근 배		의원	백 진 우	
	의원	김 성 기		의원	이 상 직	
	의원	김 성 원		의원	김 중 문	
	의원	정 영 주		의원	박 중 수	
	의원	김 성 준				
				작성자	김 광 진	